

2010년도 제5차 이사회 서면결의

▶ 회원 및 회비규정 개정

본회는 지난해 11월 24일 각 회원사에 본회 회원 및 회비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부의한 결과 본회 정관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제30조(이사회 의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다.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기 발송한 공문을 도태로 농가회원 대의원을 오는 1월 30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TV 방송사 및 일간지에 보도자료 발송

▶ AI 관련 과대 보도 자제 요청

본회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닭고기 안전성을 홍보코자 '음식을 통해서 AI는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TV 방송사 및 일간지에 배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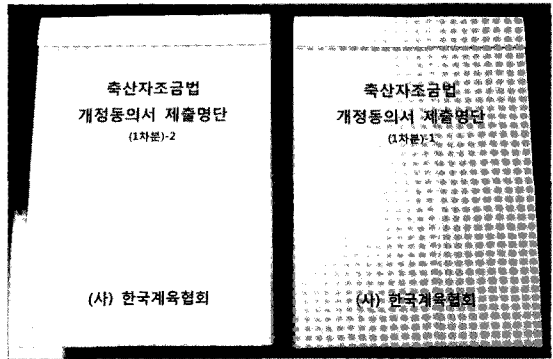
본 자료에 따르면 "닭은 출하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건강한 개체만을 도계하기 때문에 AI에 감염된 닭고기의 시중 유통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과거 우리나라에서 3차례에 걸쳐 AI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인체에 감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조기에 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재개정 요구

▶ 1,201농가 서명 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본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통계청 기준(2010년



9월) 전국 육계사육 1,700농가의 70.6%에 해당하는 1,201농가의 서명을 받아 현행 육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중단 및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특히 본회는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된 자조금법 '제5장 벌칙 제3조(과태료) ②항1호'와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사실상 일치하는 타 축종과는 달리 육계산업은 이미 계열화가 85% 이상 진척된 상태로 자조금 거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육계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정된 자조금법의 시행을 강행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 PR·이벤트 부문 우수상 수상

본회는 지난해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한국사보협회 주최로 열린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PR·이벤트 부



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본회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계육관련 전시회인 '2010 치킨 페스티벌'을 개최해 소비자와의 직접 만남을 통한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려 닭고기 소비촉진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PR·이벤트 부문' 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서성배 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닭고기가 전국민이 즐겨먹는 '1등 식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 올해 개최할 '2011 치킨 페스티벌'에는 기존 전시회와는 차별화된 체험형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사)한국사보협회는 기업문화 창달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경영을 지원하는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 그리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담당자의 사기진작, 관련업계의 발전을 꾀하고자 매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을 주최하고 있다.

▶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 개정안 적용 유예 요청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공문 발송

본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 변경(공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첫째, 부분육에서 소수 비품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1+ 등급을 배제하는 것보다는 1+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비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되며, 둘째, 통닭(부분육·가공육) 1+ 등급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책임자 등에게 부분육 1등급, 2등급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해도 학교 단체급식의 특성상 통닭(부분육·가공육) 1+등급을 요구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닭 도체 등급 판정기준을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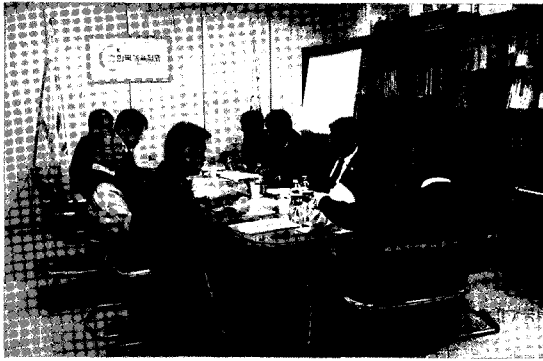
이에 본회는 2011년 5월까지 등급판정 기준 변경안의 시행 유예를 통해 업계 현실에 맞는 등급판정 기준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요청했다.

▶ 육계 계열화사업 제도 개선 관련 실무회의 개최

▶ 계열화 사업 근거 마련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는 가축 계열화사업과 관련해 계열화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본회 회의실에서 법제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력 제고,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화 목표 달성 등을 위해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각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2011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송부,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함께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확정 등록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홍보 리후렛

▶ 각 회원사에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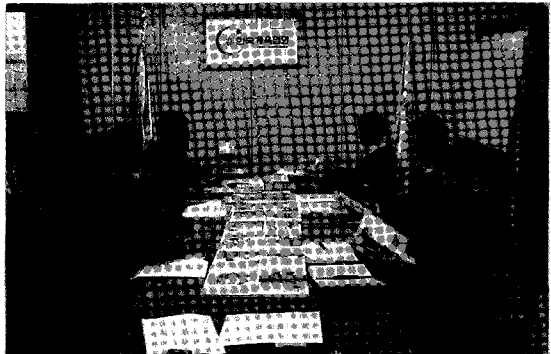


본회는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관한 홍보물을 각 회원사에 배부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점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8차 편집위원회 개최

▶ 2011년도 '월간 닭고기' 편집계획안 검토



본회는 지난해 12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8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1년도 '월간 닭고기 표지' 컨셉과 아울러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1월 4일 개최키로 한 2011년도 제1차 편집위원회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A 발생에 따라 취소됐다.

2011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송부

▶ 회원사에 공문 발송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만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